

Comment

Global Economy

4 October 2012

Macro Trends

미국 대선 직전 유가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

QE3 이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는 약세 모드에 있는데, 미국 대선과 상당한 연관성을 띤 흐름으로 판단됨. 미국 대선 직전 유가 하락 안정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바 있는데, 미국 대선 당일(11 월 첫 화요일) 유가(WTI)는 항상 9 월 고점보다 낮았으며 10 월 중순 이후로는 본격 관리 모드에 들어감. 이러한 경험을 감안할 때, 현재 유가가 향후 한 달 동안 오름세를 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미국 대선 이후에는 미국 재정절벽, 중국 정권 교체 등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특히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란산 군사적 긴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가 중요 변수임.

미국 대선 당일 유가는 항상 9 월 고점보다 낮았다

WTI 가격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83 년 5 월 이후, 미국 대선은 총 일곱 차례가 있었음.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 월의 1 일이 아닌 첫번째 화요일이므로 2~8 일 중 하루가 됨. 그런데, 대선 당일 WTI 가격이 9 월 고점을 상회한 바는 한번도 없음.

10 월 중순 이후 유가는 본격 관리 모드

과거 경험을 감안하면 9 월 이후로는 정책적으로 유가 관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유가 상승세가 10 월까지 계속되었던 사례가 1996 년, 2004 년 등 두 번 있는데(1996 년(빌 클린턴 vs 밥 돌), 2004 년(조지 부시 vs. 존 케리)), 각각 10 월 21 일, 10 월 22 일에 유가가 고점을 형성했음.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사례에서도 유가는 10 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음. 즉, 10 월 중순 이후로는 본격적인 유가 관리 구간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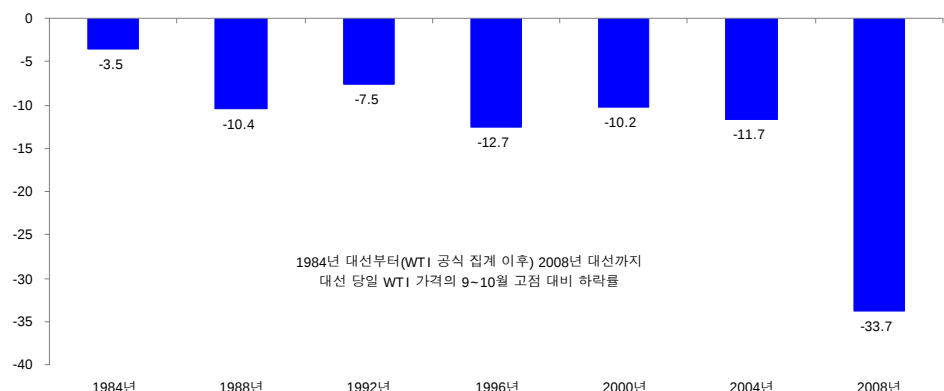
과거 경험을 감안할 때 올해 대선 당일 유가는 대략 90 달러 내외

1984 년부터 2008 년 대선까지 일곱 번 사례에서, 대선 당일 WTI 가격의 9~10 월 고점 대비 하락률 중간값(median)은 10.2%임. 이를 현 시점에 적용한다면, 9 월 14 일에 기록한 99 달러가 고점이라는 가정 하에 대선 당일 유가 기대값은 89 달러임. 앞으로 한 달 동안 유가는, 미국 고용지표가 좋거나 할 때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만, 10 월 중순 이후 본격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는 과거 대선 직전 경험칙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은 거의 없는 상태로 평가 가능.

미국 대선 이후 유가는?

과거 경험으로는 미국 대선 직후 유가 방향성이 어느 쪽이다 말하기 어려움. 금년에는 대선 이후 중국 정권 교체나 미국 재정절벽 이슈 등이 중요 매크로 변수이며,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미국 대선 이후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가 특히 중요한 변수임.

Figure 1. 미국 대선 당시 유가는 9~10 월 직전 고점 대비 하락. 1984 년, 2008 년 제외하면 약 10%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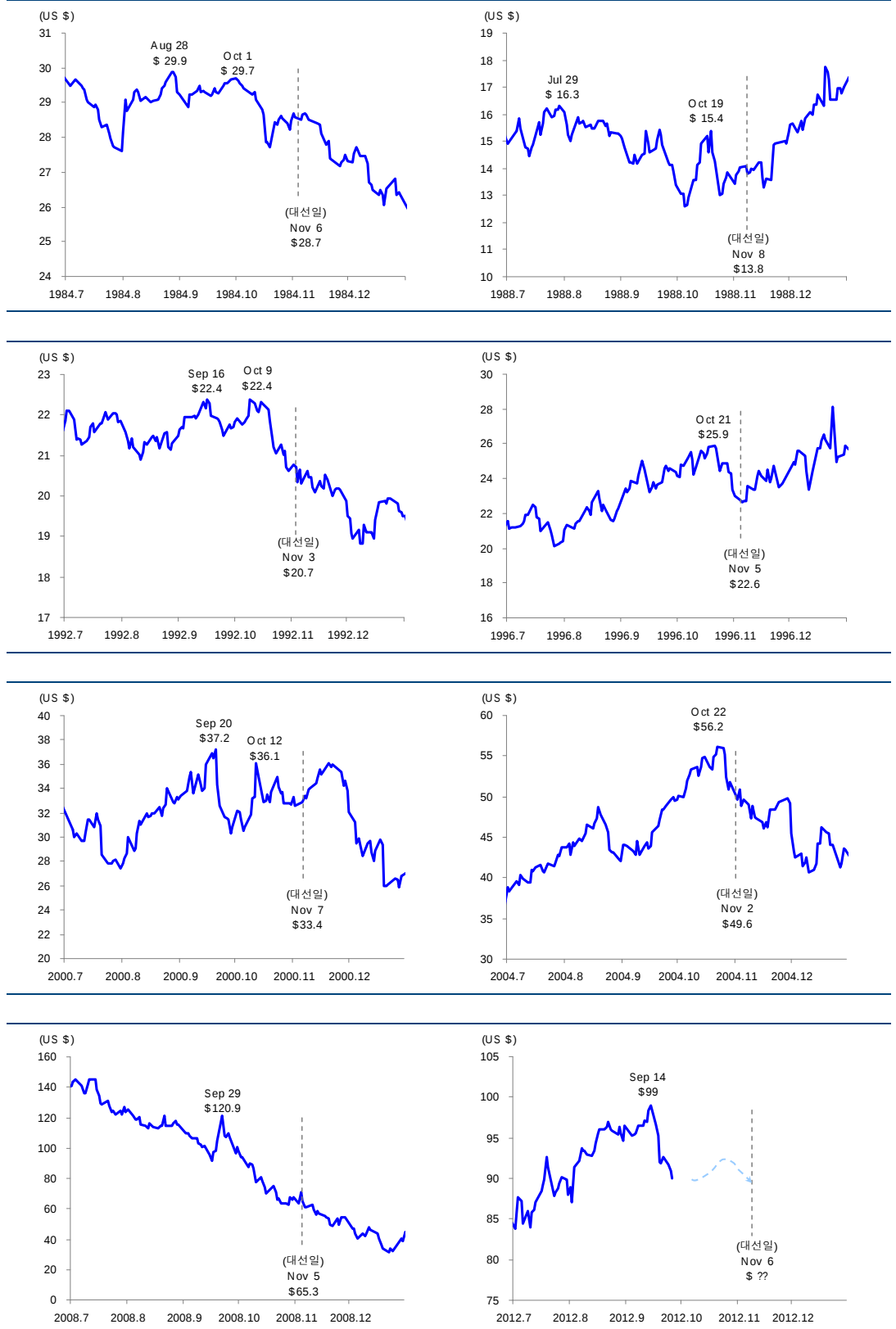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박희찬, Economist
3774 1850
hcpark@miraeasset.com

권주원
3774 1993
jkwon@miraeasset.com

Figure 2. 대선 당일 전후 WTI 흐름(1984년부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박희찬, 권주원